

大學과 文學敎育

李 起 哲

[1]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1,2학년에 이르는 기간은 신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人生의 황금기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청소년 학생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향유하느냐가 큰 과제가 된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文化, 社會, 心理學의 제 문제가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러 측면의 문제들 중에서 특히 文化의 문제, 그 중에서도 文學의 문제로 범위를 좁히고, 文學의 문제 중에서도 몇 가지 부각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시 그 대상을 좁혀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 한다. 이 논의는, 표제는 <대학과 문학 교육>이지만 원래 필자가 의도했던 표제는 <大學에서 文學敎育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었다. 오늘날 각 대학에서는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 교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거기엔 영어, 문화사, 철학, 자연과학류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지 못할 과목의 하나가 교양국어이다. 이 교양국어도 교과와 교과과정과 교수의 구성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이 꼭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대학에서는 교재를 종합적으로 짜인—이틀테면, 어학과 문학이 같은 비중으로 들어있고 일반 논설문, 고전 현대문들이 또한 같은 비중으로 들어있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이들을 골고루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選別해서 가르치는 수도 있으며 아니면 특별히 그 대학 자체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편집인들에 의해 편집된 책을 교재로 사용해서 그 대학 공통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교수가 협의하여 가르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국어 시간에 학생들과 상종하여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며 과제를 부과하다 보면 학생들의 의식상태나 독서의 수준을 은연 중 재어보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 중 특히 作文에 대해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작문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어색해 하며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지금까지의 그들의 독서량이 거의 한심할 정도로 빈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작문을 두려워 하고 어색해 하는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소

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들이일 경우 자기를 노출시키게 되는 것을 꺼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별로 해보지 않은 作文을 대학에서 새삼스럽게 하려하니 자기의 作文능력에 자신이 생기지 않고 또한 그것의 제출이 과제 등으로라도 부과된다면 결국 그것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자기의 不備한 作文능력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수치감이 앞서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作文 과제를 부과하게 되면 싫은 표정을 짓거나 거부하려하는 현상들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원고지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더우기 자기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조리있게 서술해 나가는 능력은 단순한 생각의 서술 이상으로 힘든 것인 것 같다. 이러한 것이 실정이고 보니 교양과정을 지나서 語文系 전공계열로 들어가면 外國文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外國語 능력을 위해 단어들의 외고 쓰기 번역 능력을 기르기에 전력을 다하게 되므로 作文이나 기타 독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국어국문과에 들어온 학생들이라 해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교양과정에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독서나 작문이 갑자기 될 리는 없어 담당교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측정하기가 힘들고 학생들도 교수의 지도나 강의에 임하기가 어려워지고 당황하기가 일쑤다. 2,3,4학년에서 행해지는 문예창작 시간이라든지 문학강의(소설, 시 강의등) 시간이 바로 그런 예의 현상이 된다. 讀書不在라는 말은 요즘에 와서는 文化나 文學의 논의가 있을 때면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반갑지 않은 용어 중의 하나다.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 전반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았고 소위 名門大學의 진학률이 학생 당사자 뿐 아니라 학교 자체의 명예와 심하게는 학교 운영의 成敗가 달렸다는 사고는 이같은 학생들의 文化素養을 극도로 貧乏하게 만들어 버렸고 個中에는 그같은 소질이나 취향이 있는 학생들마저 그 싹을 길러주지 못하고 묻어두게 된 것이다 문학서적에서 얻어지는 교양이 사회적 實利를 추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식은, 대학이 하나의 직업훈련기관에 불과해졌다는 생각을 갖게한 일과 함께 오늘날의 중등교육에서나 대학교육에서는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구미의 대학문과에서는 1,2학년 시절엔 거의 예외없이 교양도서에 대한 과제들(리포트)에 파묻혀 지나다거나 심지어 문학강독 시간에 제속 소설이나 시를 읽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 부럽게 생각해야 하고 또 한번 쯤 그런것을 도입해볼 적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도 현금엔 고답적인 강좌명 —이를테면, 현대시론, 현대소설론, 현대비평론—을 수정해서 시강독 또는 현대시, 소설강독 또는 현대소설 등으로 고치고있는 점도 그러한 예의 하나가 될 것이나, 아직 그러한 피상적인 일들로만은 어떤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독서부재 교양교육의 경시가 어디서부터 연유했는가? 그것은 이미 金泰吉, 車仁錫교수가 말한 것처럼, 교양교육이나 교양독서가 사회친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의식의 상승에 연유한¹⁾ 것이거나 車河淳교수가 말한 것처럼 시청각 매체의 홍수로 인한 活字文化에 날로 거리감이 생긴 이유이며, 이러한 活字매체를 경원시하는 풍조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²⁾

속도편승에서 오는 시간의 절약, 대중매체의 안일함과 쾌감들은 굳이 장시간 많은 努力을 요하는 독서를 의면할 것은 물론이고, 이같은 데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은 활자화된 것이라 해도 전 작품의 총체적 탐독이라기 보다는 간략한 요약이나 다이제스트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대학 본고사 폐지가 있고난 뒤 외형적으로 보면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질개발이나 작문 독서 등 여가선용을 많이 시킨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같지 못하다고 현직을 고등학교에 두고 창작을 해 온 중견작가 全商國씨는 토로한다.³⁾ 그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하기 위해 가끔 교양서적을 일러주고 독후감을 써 내도록 하는데,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써 낸 학생은 不過 3,4명이고 나머지의 대다수는 책 앞부분의 서문이나 뒷부분의 해설을 베껴내는 것이 고작이라고 말한다.

그 대신 학생들의 관심은 입시에 관련이 예상되는 부분, 출제의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 즉 유명작가의 작품이름, 국적, 연대 등만 된다는 것이다. 작가와 작품의 이름, 연대의 기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의 내용에 관련되지 못하는 작가나 작품 이름 연대의 기억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 것은 너무도 빠른 것이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외운 연대나 작가 작품 이름은 일정한 기일이나 목적이 끝나면 함께 그러한 기억도 사라져 버릴 것은 빠른 일이다.

大學에 진학하기 위해 이같은 편의위주나 직접적 효과를 노린 교육은 그

1) 조선일보 1981. 2. 13일자.

2) 同書.

3) 조선일보 1981. 2. 12일자.

영향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大學에까지 미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習作을 기피하고 안일지향의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一生에 걸쳐 영향을 줄 문제일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더우기 大學에서의 졸업정원제는 또다시 자유교양교육을 지향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놓고 교양독서나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하기에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된 것이다.

[2] 이 글은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생각한 나머지 주로 필자가 생활하는 地方에서의 몇 개 대학을 상대로 일단 設問을 해본 것이다. 이 設問은 참여한 학생들이 진지하고 솔직하게만 답을 해 주었다면 거의 확실하고 유익한 해답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진지한 태도가 적었다 해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의 단서는 되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설문 에 참가한 대학과 학생수,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학년은 모두 2학년으로 한정했고 계열은 모두 어문계열 또는 국어국문과(국어교육과)학생으로 했다.

慶北大—55명. 啓明大—91명. 嶺南大—46명. 曉星女大—19명. 총 211명.
시기는 1981年 5月, 도와주신 교수는 李注衡(경북대) 洪淳性(계명대) 金元重(영남대) 吳養鶴(고성女대) 제교수들이다.

設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設問 各 項目의 대답자 수가 211명에 맞지 않는 곳도 있다. 그것은 참가자가 어떤 곳은 두 개 이상을 표시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 곳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전체 수에 거의 차질이 없다.

<설문지>

1981년 5월 대학(교)
()학과 ()학년

1. 어문계열 또는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한 이유는?

- (1) 어문학 또는 국어국문학에 취미가 있어서(179)
- (2) 타 계열보다 합격에 쉽겠기에(7)
- (3) 졸업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5)
- (4) 아무생각없이(12)

2. 앞으로 전공을 택한다면?

- (1) 고전문학(60) (2) 현대문학(99)
- (3) 고전어학(13) (4) 현대어학(34)

3. 문학을 전공 할 경우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 보고 싶은가?

- (1) 이론쪽(65) (2) 창작쪽(47)
 (3) 이론창작을 겸해서 하고싶다(83)
 (4) 잘 모르겠다(9)
4. 현대문학을 전공할 경우 어느 분야를 택하고 싶은가?
 (1) 시(43) (2) 소설(84) (3) 수필(40) (4) 희곡(5) (5) 평론, 기타(32)
5. 고등학교에서 문학의 소양을 위한 교육은?
 (1)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5) (2) 적당히 받았다고 생각한다(30)
 (3) 부족했다고 생각한다(119) (4)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한다(61)
6. 고등학교에서 작문교육은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는가?
 (1) 많이 있다(2) (2) 조금 있다(62)
 (3) 별로 없다(85) (4) 전혀 없다(57)
7.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분야의 비중은 어떻다고 생각되는가?
 (1) 충분하다(9) (2) 적당하다(83)
 (3) 적다(108) (4) 아주 적다(16)
8. 고등학교 때까지 원고지를 써 본 경험은?
 (1) 많이 있다(36) (2) 조금 있다(136)
 (3) 별로 없다(44) (4) 전혀 없다(2)
9. 고등학교 때까지 시나 소설 수필을 써 본 경험은?
 (1) 많이 있다(16) (2) 조금 있다(115)
 (3) 별로 없다(57) (4) 전혀 없다(23)
10. 문학을 위해서 영어 등 외국어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반드시 필요하다(100) (2) 어느 정도 필요하다(96)
 (3) 별로 필요치 않다(12) (4) 전혀 필요 없다(3)
11. 자기의 외국어 독해력을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
 (1) 상(2) (2) 중(113) (3) 하(89) (4) 전혀 안된다(7)
12. 문학수업에 있어서 고전문학의 필요성은?
 (1) 반드시 필요하다(126) (2) 어느 정도 필요하다(75)
 (3) 별로 필요치 않다(8) (4) 전혀 필요 없다(2)
13. 외국작품과 국내작품 중 어느 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가? (번역된 것도 좋음)
 (1) 외국 작품(72) (2) 국내 작품(79)

(3) 비슷하다(61)

14. 지금까지 읽은소설 중 기억에 남는 작품 이름을 4개 정도 써라.
4개이상 쓴 사람(198)
3개이하를 쓴 사람(13)
15.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시의 제목을 4개 이상 써라.
4개이상 쓴 사람(177)
3개이하 쓴 사람(34)
16.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필의 제목을 4개 이상 써라.
4개이상 쓴사람 (85)
3개이하 쓴사람 (126)
17.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희곡의 제목을 4개 이상 써라.
4개이상 쓴 사람(93)
3개이하를 쓴 사람(118)
18. 자기가 읽은소설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의 줄거리를 200자 이상으로 써라(교과서
외의 것이면 더욱 좋음)
어느 정도 완성된것(70)
19. 자기가 의고 있는 시를 한 편만 아는 데까지 써 보라(교과서 외의 것이면 더욱
좋음)
어느 정도 완성된 것(66)
20. 자기가 알고 있는 해외 소설가 이름을 넷 이상 써라.
4이상 쓴 사람(176)
3이하를 쓴 사람(35)
21. 자기가 알고 있는 국내 소설가 이름을 넷 이상 써라.
4이상 쓴 사람(186)
3이하를 쓴 사람(25)
22. 자기가 알고 있는 해외 시인 이름을 넷 이상 써라.
4이상 쓴 사람(142)
3이하 쓴 사람(69)
23. 자기가 알고 있는 국내 시인 이름을 넷 이상 써라.
4이상 쓴 사람(177)

3이하를 쓴 사람(34)

24.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 중 문학의 시간배정 비율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1) 많다고 생각한다(6)
- (2) 적당하다고 생각한다(47)
- (3) 모자란다고 생각한다(122)
- (4) 아주 모자란다고 생각한다(26)

25. 문학개론, 문예창작, 대학작문등의 시간은 어떻게 하던 좋다고 생각하는가?

- (1) 이론을 위주로 하던 좋겠다(17)
- (2) 창작연습을 하면 좋겠다(42)
- (3) 둘을 병행하면 좋겠다(137)

26. 문학을 하는 것이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1)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102)
- (2)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61)
- (3)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17)
- (4)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2)

27. 시인, 소설가라는 명칭은 자기의 명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1)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50)
- (2)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82)
- (3)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45)
- (4)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13)

28. 시와 소설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 (1) 시(65)
- (2) 소설(100)
- (3) 둘 다 비슷하다(37)
- (4) 잘 모르겠다(1)

29. 시보다 소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 (1) 소설이 원고료를 많이 받으므로(3)
- (2) 시가 쓰기 어려워서(41)
- (3) 시인보다 소설가란 이름이 더 좋아서(2)
- (4) 다른 이유가 있으면 쓰시오(부담자(100)

30. 문인이 직업을 가진다면 어떤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 (1) 교원(72)
- (2) 기자(신문, 잡지)(103)
- (3) 상, 공업(4)
- (4) 농업(8)
- (5) 무직(23)
- (6) 기타(7)

8 嶺南語文學(第8輯)

31. 중, 고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소설을 어느 정도 읽은 적이 있는가?

- (1) 10편 이상(164) (2) 5편 이하(32)
(3) 거의 없다(8) (4) 전혀 없다(2)

32. 중, 고교에서 교과서 외의 시를 몇편 정도 읽었는가?

- (1) 10편 이상(146) (2) 5편 이하(40)
(3) 거의 없다(15) (4) 전혀 없다(1)

33.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 (1)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0)
(2)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이다(51)
(3) 조금 어려우나 어느정도는 이해하겠다(137)
(4) 전혀 이해할 수 없다(8)

34. 현재 문학에 접할 기회는?

- (1) 아주 많다(30) (2) 보통이다(119)
(3) 별로 없다(48) (4) 전혀 없다(3)

35.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작품을 읽는 횟수는?

- (1) 한달에 1편 정도(53) (2) 1주일에 1편 정도(49)
(3) 하루에 1편 정도(3) (4) 틈만 나면 언제나(98)

36. 대학에서 문학을 접할 기회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 (1) 문학강연이나 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자주 열었으면(105)
(2) 교지 및 학보를 대폭 확충 했으면(40)
(3) 문예 씨클을 만들어 자주 문학토론을 했으면(35)
(4) 별로 생각해 본 바 없다(30)

37. 위 36번 것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 (1) 1번(4) (2) 2번(19) (3) 3번(23) (4) 4번(0)

38. 대학의 교과과정 중 시, 소설, 수필 등의 작품을 직접 읽는 시간을

- (1)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116)
(2) 한달에 한두 시간정도 두었으면(59)
(3)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18)
(4) 잘 모르겠다(10)

39. 문학 또는 문학인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꼭 필요하다(81) (2) 조금 필요하다(80)

- (3) 별로 필요 없다(27) (4) 전혀 필요 없다(11)
40. 월간 문예지 중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아는 대로 써보라.
종합지와 문예지를 3이상 함께 쓴 사람 : (71)
문예지만 3이상 쓴 사람 : (56)
종합지, 문예지의 제호 오기나 한 두가지만 쓴 사람 : (45)
41. 이제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1) 10명이상(21) (2) 5명이상(55)
(3) 5명이하(104) (4) 아무도 모른다(12)
42. 친구들끼리 모이던 작자 읽은 책의 어떤 면을 많이 이야기 하는가?
(1) 책의 줄거리(51) (2) 주인공의 성격(91)
(3) 저자의 사상(58) (4) 기타(9)
43. 지금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1) 시(15) (2) 소설(135)
(3) 사상집류(44) (4) 기타(15)
44. ‘하늘’에 대해 400자 정도의 산문을 즉석에서 써보라(완성되지 않아도 좋음)답을 쓴 사람. (65)
45. ‘개나리 꽃’에 대해 몇 행의 시를 즉석에서 써보라(완성되지 않아도 좋음)답을 쓴 사람. (51)

우선 이 설문을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이 된다.

- (1) 대학 어문제열 지방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물음(1. 2. 3. 4)
(2) 고등학교에서의 문학(국어) 교육에 대해서 묻는 물음(5. 6. 7. 8. 9)
(3) 지금까지의(고등—대학2학년) 독서량을 묻는 물음
3.1 객관식으로 물음(13. 14. 15. 16. 17. 20. 21. 22. 23. 31. 32. 40. 41)
3.2 주관식으로 쓰라고 한것(18. 19)
(4) 대학생활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묻는 물음(24. 25. 34. 35. 36. 37. 38)
(5) 문학과 자기의 입신관계를 묻는 물음(26. 27. 28. 29. 30)
(6) 문학의 실질적 내용과 이해태도를 묻는물음(10. 11. 12. 33. 39. 42. 43)
(7) 실제창작(44. 45)

이러한 유형별 항목들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1. 어문계열(국어국문과) 지망이유는 어문학 또는 국어국문학에 취미가 있어서 들어왔다(179명)가 대부분이다.

합격의 실리를 따지거나 졸업 후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라는 대답은 불과 7명과 5명 뿐이다. 앞으로의 전공은 현대문학 쪽이 많고(99명) 그 다음으로 고전문학(60) 현대어학(34) 고대어학(13)의 순이며 문학을 전공할 경우 이론과 창작을 겸해서 해보고 싶다는 쪽이 83명이고 이론 쪽이 65명, 창작쪽 47명인데 이론과 창작을 겸하고 싶다는 대답이 많은 것은 아직 이론과 창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나 구별이 不足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거나, 진로나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두가지를 겸하는 것이 유용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나타낸 이유로 볼 수도 있다. 현대문학을 전공할 경우에도 소설이 84명으로 시의 4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소설이 현대문학의 中心장르가 되었고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분야이며 돈벌이도 된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것은 문학과 입신 관계를 묻는 물음인 (28), (29)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29)항에서는 시보다 소설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시가 쓰기 어려워서가 41명인데 비해 소설은 시보다 폭넓은 인생의 묘사와 재미있는 장르라는 이유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는 상대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폭이 좁은 인생의 표현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의 열세 이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교에서의 문학(국어)교육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문학의 소양을 위한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가 119명이고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가 61명으로 거의 전부가 부족했다는 쪽이고 작문교육을 고등학교 시절에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를 합쳐 142명(전혀없다가 57명)이다. 역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분야의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8명이고 적당하다가 83명으로써 이는 국경 국어교과재 자체는 문학 비중이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지만 고등학교의 현장의 국어교육에서 문학 분야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음으로써 온 학생들의 인상인 듯하다. 원고지를 써 본 경험은 별로 없다가 44명인데 비해 조금있다가 136명으로 수의 우세를 보이는 것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입시 준비를 위한 원고 작성 시험 아니면 과제 정도로 해 본 경험을 말하는 것인 듯하고 시나 수필, 소설 등 창작을 해 본 경험도 조금

있다가 115명, 별로없다가 57명인 것은 거의 이와 같은 이유인 듯하다.

3.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의 독서량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3.1 객관식으로 묻는 물음: 외국작품과 국내작품의 독서량은 비슷하고 지금까지 읽은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을 묻는 물음에는 회곡을 제외한 시소설 수필분야는 대개 4개 이상의 제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제목도 상당량 기억하고 있었다. 그 중 빈도가 높은 것은 소설에서 여자의 一生. 좁은 門. 大地. 부활, 적과 흑, 동백꽃, 흙, 날개, 메밀꽃 필 무렵, 만다라 등이고 시에서는 국화열에서, 서시, 청포도, 깃발, 산유화, 님의 침묵 등이며(외국지의 제목을 쓴 학생은 거의 없다) 수필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낙엽을 태우면서, 청춘예찬 만이 계속해서 나오고(이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다) 그 외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전해된) 누가 들꽃보다 아름다운 옷을 지으랴(안병욱) 같은 수필집들이 가끔 보인다. 회곡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그나마도 2.3개 정도의 기억이 많았다.) 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리어드 오딧세이, 고—도를 기다리며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교과서에서 익힌 이름이 거의 전부였다. 시·소설은 그래도 4개 이상을 쓴 사람이 많으나 수필, 회곡은 쓰지 못한 사람이 쓴 사람보다 많은 현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아운, 완와삼 등 제목의 오기, 빵만으론 살 수 없다를 수필로 한것, 안병욱—안병국으로 쓴 학생 또는 현재 발간되는 문예지 이름을 쓴 것 중 제목 오기로는 월간 문예, 창작과 예술, 동아, 조선문학, 지성과 문학, 중앙문학도 있었지만 대개는 정확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비교적 작가와 작품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해외및 국내 시인, 소설가 이름도 넷 이상 쓴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카프카, 헤르만 헷세, 토스토옙스키, 지드, 헤밍웨이, 워즈워어드, 릴케, 바이런, 예이츠, 그리고 김동리, 황순원, 김동인, 이광수, 김유정, 이효석 등과 유치환, 서정주, 박목월, 김소월, 조지훈, 김춘수 등이었고(시인도 외국시인 이름을 쓴 학생은 드물다.) 국내 소설가 중 한수산, 이문열등 70년대 이후 등단한 신예의 이름이 있는데 비해 시인 이름은 최소한 50년이전 황동규까지가 드물게 나오고 기타는 모두 20년대나 30년대 그것도 교재에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는 주로 교과서적 상식이 아니면 배스컴의 광고를 통한 제목이나 거기에 많이 보이는 이름의 기억을 나타내 주고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실 소설의 광고는 배스컴에 빈번한시의 광고는 거의 드문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항(31). (32)에서

중고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시나 소설을 10편이상 읽었다는 대답이 (146), (164)와 같이 많은 것의 이해를 어렵게 하며 읽기는 읽었으며 시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별로 기억해 두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면 아주 저속한 작품도 여기에 포함시켜 대답한 것이 아닌가 싶다.

3.2 주관식으로 묻는 물음 : 지금까지 읽은 소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줄거리를 200자 이상 써 보라는 물음엔 대답자가 90명, 기억에 남는 시 한 편을 아는 데까지 써 보라는 물음은 대답자가 66명인데, 그나마도 대체로 전반을 조금 쓰다가 뒤가 흐려지는 것이 보통이었고 소설 가운데 뿌리 (알렉스 헤일리)가 11. 번신(카프카) 7. 상처(김수현 방승국) 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 운영전 2. 구운몽 3(빈도 1회의 것은 여기에 들지 않았다.)이었고 시는 김소월의 시가 많았지만(산유화)(12). 진달래(7). 못잊어(4). 초혼(2) 그 외 木馬와 淑女(박인환) (이는 유행가로 불리워졌음). (14)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푸시킨)(7)번이었고 낙화(조지훈) (4) 바위(유치환) (3)등 교과서에는 없어도 교과와 관련된 참고서에 소개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쓰지말라는 문제에서의 주의가 주어져 있음)

4. 대학 생활과 문학과의 관계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 중 문학의 시간 배정 비율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122, 아주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26으로 모두 148이며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47이고, 문학개론 문예창작 대학 작문등 문학 관계 시간들을 이론과 창작 둘을 병행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137명으로 이론 위주나(17) 창작 쪽만 좋다고(42) 생각하는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생활에서 문학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48, 보통 정도는 된다고 119명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문학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편이며 그러므로 해서 한달에 시. 소설. 수필 중 어느 것이든지 1주일에 1편 정도 읽는 숫자가 49명, 한달에 1편 정도가 53이고 틈만 나면 언제나 읽는다는 숫자가 98명이나 된다. 따라서 문학강연이나 문학의 밤, 교지나 학보, 문예씨클의 확충을 대개는 다 기대하고 있고 교과과정 중에서도 작품을 직접 읽는 시간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가 116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18명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25)항의 교과과정 중(수업) 창작연습을 직접했으면 좋겠다는(42명) 것을 참고하면 어문계열이나 국어국문과 학생들은 창작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5. 문학과 자기의 입신관계를 묻는 물음에서는,

문학을 하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2명으로 조금 된다고 생각한다는 61명까지 합해 163명인데 비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45명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시인, 소설가란 이름이 자기의 명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학생에 대해서도 많이 된다가 50, 조금 된다가 82, 별로 되지 않는다가 45, 전혀 되지 않는다가 13명으로, 어쨌거나 국문과 학생 중에서도 창작에는 별 관심이 없는 학생이나 창작을 하되 시인, 소설가 등 전문 문인이 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하게 해 준 대답도 상당수 있었다. 문인의 직업에 관해서는 신문, 잡지 등의 기자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이 72명, 무직이 좋다는 대답이 23명으로, 이는 문인이 생활만 된다면 직업이 없이 문필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현상의 반증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문필업은 직업이지만 이 대답의 경우는 문필을 직업으로 생각지 않고 한 대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6. 문학의 실질적 내용과 이해 태도를 묻는 물음에 관해서는,

문학을 위해서 영어 등 외국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까지 합해 196으로 대부분이고, 고전문학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까지 합해 201명이었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현대시에의 이해는 어느정도 이해하거나 비교적 쉽게 이해한다는 188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8명으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학인의 사회참여는 필요하다가 161명으로 필요없다는 38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되고 독서에 대한 대화를 할 경우 주르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한다 51, 주인공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91, 저자의 사상 58로 거의 막개 줄거리, 주인공의 성격,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독서경향은 소설이 135, 사상집류 44, 수필류 53, 시 25 순이었다.

7. 제목을 주어 실제 창작을 해 보게 한 물음으로서는 답을 쓴 학생수가 산문이 65명, 시가 51명인데, 시에서 그중 정제된 몇 작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산문은 거의 5-8줄 쓰다가 중단 했으므로 완전한 것을 볼 수 없어 제외한다)

개나리 꽃,

소풍간 누이의 발걸음이다/호루라기 소리에 머무는/누이의 기다림이다/개나리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누이는 호루라기 소리에/젖은 손을 댄다.

(경북대)

개나리 꽃,

나 어렸을 적／추억을 담고 있는／작은 보석 송이／봄이 되면／계절의 전령사 마
냥／어느덧 내 눈앞에 나타나／있었던 옛 추억을 동반한다／언덕배기／길따라 피
어 있던／노란 꽃무덤. (경복대)

개나리 꽃,

화사한 봄빛 아래／노란 네 몸을 드러 낼 때／슬픔으로 가득찬 가슴을 밀고／
하얗게 밀려오는 파문과 함께／노란 네 꽃잎 가슴 속에 접어 두리. (제명대)

개나리 꽃,

혼자 있기는 너무 애처롭다／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던가／너무 화사하다 못
하여 그리움만 일제한다／오히려 신통의 일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경복대)

[3] 위의 설문답에서 몇가지 제약(이를테면 전국의 대학 대상이 아닌 대구 시내의 대학이 대상이었다든지 답을 한 학생들의 진지성 문제라든지 계열별이나 졸업정원제에 대한 구속이 앞으로 제도상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생각에 의한 대답으로 밖에 간주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을 감안한다 해도 여기서 나온 답들은 현재로서의 문학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문학교육의 方向설정에 대한 참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러한 문제점과 方向에 대한 요약을 위에서 보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문제(또는 국어국문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마지 못해서 들어 왔다가 나 어찌다가 보니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라 대개가 취미나 소질이 거기 있어서 들어온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전공은 어학보다는 문학이, 고전문학보다는 현대문학이, 시, 수필, 희곡보다는 소설쪽의 지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현대문학은 반드시 창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하려는 학생도 창작 지망생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수업의 진행)은 이론과 창작을 비슷한 수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의 문학에 대한 소양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일이고 또 문학자체가 가진 개연성 때문에 산술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여 피상적인 수업(이를테면 어학 쪽이 문학 쪽보다 실수요시간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다는 등)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학생들은 고등학교 국어 교재 중의 문학부분이 차지하는 범위가 어학에

비해 적지 않은데도 실제 수업에서의 문학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원고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와같은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은 대학 1,2학년 학생의 원고 사용이 미숙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3. 지금까지의 독서량의 측정은 더욱 애매한 점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그것은 교과서 외의 작품을 읽은 학생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읽은 숫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과서 외의 작품을 쓴 대답 중에 있는 제목(여자의 一生, 좁은 門, 大地, 부활, 적과 虎, 虎, 동백꽃, 만다라 등도 (18), (19)의 기억에 남는 작품의 줄거리나 시의 행들을 직접 써 보라는 행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좁은 門, 동백꽃은 더러 있었다) 그러한 작품들을 피상적으로 읽었거나 그 줄거리 정도만 들었거나 제목만 들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더욱 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소설쪽보다 시, 수필 회곡 분야인데, 이들은 대체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청포도 깃발, 산유화, 님의 침묵, 국화 옆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낙엽을 태우면서, 청춘예찬 등)이고 회곡은 셰익스피어의 4가지 비극들은 아마 시험 대비로 제목을 기억해 두고 있어 쓰긴 했으나 실제로 그 숫자만큼 읽었으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은 작가나 시인이름을 쓰라는 물음에서도 거의 같은 현상이고, 특히 현재 발간되는 국내 문예지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한 학생이 많음은 대학 1,2학년을 거치면서도 아직 현행 문예지를 거의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어 지금이라도 교과 시간중이나 아니면 과제 등으로 독서량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것도 임의로 책을 읽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가 양서를 지정해 주어서 적어도 현재로써 古典이 되어있는 名作들을 폭 넓게 두루 읽히고 독후감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중에 별도로 토론회 발표회를 가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4. 대학의 시간 배정 비율은 이 설문대상 학생이 아직 3,4학년을 거쳐보지 않은 학생들이므로 전 교과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으나 이들 학생의 현재까지의 교과과정에 대한 인상만으로도 문학쪽의 비중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또한, 유형(1)에서 말한 바와같이 이론과 창작을 교과과정 중에 아울러 진행함이 좋고 그외에도 문학강연 써클 활동 교지나 학교신문등을 통해 발표나 토론의 기회를 주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줌이 요청된다. 대상 도서의 선택은 직감적, 정서적이며 이해가 쉬운 것에서부터 깊은 사고를 요하는 도서나 심리소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이를테면 헛새, 괴태, 하디, 셰익스피어→까뮈, 지드, 하움트만, 도스토옙스키, 울프, 프루스트, 샤르뜨르 등으로, 춘원, 효석, 유정→동인, 이상, 장용학, 최인훈 등으로, 시에서는 주요한, 이상화, 김영랑, 윤동주, 청록파→슈르레통, 김수영, 김춘수 등의 시로 읽는 순서가 좋을 것이다.

5. 문학과 입신 관계를 묻는 이 항에서는 어문계열이나 국문과 학생들이 모두 시인,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이 드러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에 종사를 한다면 자기소양과 생의 美化를 위해 또는 더욱 실리적인 경우 취직시험을 위해서라도 문학과 작문교육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익의 여부에 모든 가치를 직결시켜 볼려는 사고를 서서히라도 고쳐주어야 하고, 텔레비전 등 시청각 기재로부터 오는 손쉬운 이해와 기대 또는 원본보다는 다이제스트를 택해 줄거리만 파악하려는 안일성을 고쳐주고, 환자 매체를 통한 원본의 탐독을 중요시 하는 습관을 길러 줘야 한다.

6항에서는 문학과 보조과학(외국어, 고전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현대시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비교적 쉽게 이해하거나 어느정도 이해)는 숫자가 의외로 많은 것은 현대시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에 나오는 현대시나 아니면 대체로 많이 읽고 있는 서정시류로만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아직도 석연치 않은 면을 남기고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해와 해석이 어렵다고 할 만한 시들을 포함하지 않은 대답인 듯하다. 문학인의 사회참여는 거의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현상이 압도적인 것은 연령, 사고, 시대적 조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참여와 문학과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청된다. 소설 수필류에 비해 시의 독서물이 극히 저조한 것은 이 역시 한 시대적 풍조이긴 하나 실리와 안일에만 기우는 독서를 지양하고 정서생활과 교양을 위한 독서이거나 전문적 지식을 위한 독서이거나 간에 시의 독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학생 시절에 詩와 멀어지지 않는 바탕과 계기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않으면 안될 것이다.

7. 맨 마지막 물음으로 실제 창작을 시켜 본 것은 시의 제약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도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이 답을 쓴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도 여부에 따라 작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시절의 문학교육만이라도 정상적으로만 되면 고등학교까지의 부족했던 문학과 소양교육은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세워볼 수

있다.

참고로 金泰吉, 車仁錫, 車河淳 申東旭 諸교수가 학생들을 위해 추천한 양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대화〉편, △렘프리티트〈서양철학사〉, △러셀〈철학의 제문제〉, △論語, △金泰吉著〈철학 그리고 현실〉, 〈흐르지 않는 세월〉, △현대의 사상전집, △한국 사회과학 연구소編〈현대의 사회사상가〉〈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 △金元龍著〈韓國美術史〉, △하인리히 리켈트〈문화과학과 자연과학〉△車河淳譯〈동양의 知的 전통〉(브로노프스키—메즐리히共著), △崔淳雨著〈한국의 美〉, △이광수 장편소설〈無情〉, △廉想涉 장편소설〈三代〉, △金東仁 단편〈감자〉, △李孝石 단편〈메밀꽃 필 무렵〉, △金裕貞 단편〈봄, 봄〉, 〈동백꽃〉⁴⁾

4) 조선일보 1981. 2. 13일자.